

# 육계 자조금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가?

송 태 희 대표 \_ 남산축산

지난 4월 20일 육계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총회에서 적법성을 갖지 못한 일방적인 회의진행으로 좌초된 지 7개월만인 11월 21일, 다시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결과는 36대 36의 가부동수로 부결되고 말았다.

다른 축종에서는 자조금 사업의 소비홍보 결과로 소비가 늘어나고 가격이 안정되어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육계 분야도 한시바빠 자조금 사업이 정착되기를 소망해 왔으나 결과는 허망하기만 하다.

언제나처럼 농가들은 모이기만 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풀이의 장으로 변해서 자신들의 직장과 다름없는 계열업체들을 성토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36명도 자조금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지 자신들의 주장대로 관리위원과 감사를 추천하지 못하고 3개 축산단체가 추천한 것을 추인하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3개 단체에서 적절히 안배를 해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3개 단체가 추천한 관리위원과 감사들도 당일 참석한 대의원들과 똑같은 육계사육농가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자조금 사업은 소비홍보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목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가 한다고 해서 상전벽해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자조금 사업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원대한 목표라고 판단할 때, 총회에서 불만을 토로한 내용들은 아주 작은 것에 얽매어서 큰 것을 잃었다고 지적하면 화를 자초하는 일일까?

평소에 내재되어 있는 불만 때문에 큰 것을 놓쳐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풀이 한다고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나날이 한풀이를 해야 하겠지만, 순간적인 한풀이에 빠져서 꼭 필요한 원대한 목표를 놓쳐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한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왜 이렇게도 작은 것 때문에 현실을 망각하고 큰 우를 범하는 못난 짓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일방적으로 착취만 당하고 있는 걸까? 사실은 서로가 너무나 소중하고, 고맙고, 반가운 관계라고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까?



그리고 계열업체에서도 농가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진솔하게 받아들이며 이해하려고 하는 동반자의 자세가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준비위원회 측에서도 회의 벽두에 지금까지 지연된 경위와 자조금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안을 처리한 다음에 농가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다.

이날 모 대의원은 “전남지역의 대의원들은 전부 불참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하면서 불참하는 대의원들은 오늘 총회를 전부 반대하기 때문에 불참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했다며, 자신들이 추천하지 않은 관리위원은 권력과 돈과 명예 앞에 부패할 수 있다고까지 평가절하했다. 모 대의원은 즉석에서 추가로 관리위원을 몇 명 더 선출하자고까지 주장하는 분위기에서 이홍재 의장은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으로 이해하고, 의안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군산의 모 대의원은 오늘 이 시간에 대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었다.

자조금 준비위원회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았을 것이다.

육계 자조금 사업은 당면과제다.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의견은 핏박받아 왔다고 한 이 맺혀 있지만 한 발 양보는 전진이다. 먼 훗날을 위해서 한 발 양보하고 출범시키자고 했으나 이홍재 의장은 법제처의 법령해석까지 무시하며 관리위원 선출을 다시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일부의 강경발언에 짓눌려 분위기를 역전시키는데 실패했다. 자조금 사업을 부결시킨 36명은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어서 흡족했을까? 부결이 선언되니까 박수까지 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을까?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로 갈길 바쁜 자조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

이번의 실수가 마지막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뿐이며, 참고로 내년도 양돈자조금 사업은 115억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고 싶다. 